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7일 수요일 음 2월 26일 (3물)

기상정보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0%	제 주	0%
0%	성 산	0%
0%	고 산	0%
0%	서귀포	0%

대체로 맑음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1℃, 낮 최고기온은 17~20℃의 분포를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5~9℃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해뜸 06:14 해짐 18:59	달뜸 03:51 달짐 14:22
물때	만조 08:34 20:26	간조 01:33 14:52

식중독지수 주의 | 감기가능지수 높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1/16℃
모레	맑음	10/16℃

월드뉴스

가상화폐 합산 시가총액 2조달러 돌파

미 금융기관도 잇따라 포용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의 모형.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5일(현지시간) 사상 처음 2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이 가상화폐 데이터 업체인 코인게코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합산 시총은 이날 한때 2조200억 달러(약 2280조원)에 달했다.

가상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홀로 1조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가운데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시총 2440억 달러를 찍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2~6위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총은 4220억 달러로 집계됐다.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개당 6만1000 달러로 신고점을 찍은 뒤 6만 달러 선을 내줬으나, 이날도 5만89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초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상화폐에 손을 대는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테슬라는 보유 현금 중 10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데 이어 비트코인을 자사 전기차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혀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불을 지핀 것으로 평가된다.

모건스탠리, 마스터카드, 페이팔, BNY멜론 등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비트코인을 포용하기 시작했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기관투자자인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생활

성형수술과 이물질

김 재 인
슬로우성형외과 원장

성형수술은 영어로는 'plastic surgery'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플라스틱'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석유에서 추출되는 원료를 결합해 만든 고분자 화합물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원래 어원은 그리스어로 '주조하다(πλαστικός)'라는 뜻이다. 즉 '틀에 무언가를 부어서 만든다'는 뜻으로 일정한 형태를 만든다는 의미다.

일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다. 현대의 성형수술의 개념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손상 또는 손실된 부위를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다. 손상된 부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은 손상 정도에 따라 그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다. 특히 손상 정도가 심해서 원래 부위의 조직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원래 조직 대신 사용할 '재료'가 필요하게 된다.

성형수술에서 재료는 크게 자가(autologous)조직과 인공(artificial)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자가 조직은 말 그대로 환자 본인의 조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피부, 연골, 뼈 그리고 피판(flap)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재료지만 재료를 채취하는 부위에 새로운 손상이 생기고 또 그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조직이나 동물의 조직 또는 세포수준에서 배양한 조직 등을 이용하기 위해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인공조직은 말 그대로 인공으로 만들어낸 조직이다. 대표적인 예가 실리콘 보형물, 인공 뼈 그리고 필러(filler)다.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만큼 양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거부반응이나 내구성, 조직의 구축(contracture) 등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재료이기도 하다. 이런 한계 때문에 사람의 몸에 이식을 하는 인공 재료들은 엄청나게 방대하고 긴 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 끝에 개발됐다고 해도 각 국가의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준들을 통과해야 겨우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가 내려진다.

인공조직은 이렇게 허가가 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이 중지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사람에게 사용한 후 발생한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해야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유지된다. 하지만 흔히 '이물질'이라고 불리는 허가받지 않은 물질들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예 자료 자체가 없다. 심지어 그 위험성이 이미 확인돼 사용이 금지된 물질들도 소위 '야매'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자가조직의 한계가 명확한 현재 시점에서는 성형과 이물질은 때어놓을 수 없는 사이다. 최근 들어 성형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보편성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필러나 보형물 등의 인공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크게 사라졌고, 또 이들 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합법적으로 허가된 물질에 국한된 이야기다. 병의원 외의 장소에서 무자격자가 시술하는 뭔지도 모르는 이물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꼭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열린마당

제주문화중개소를 아시나요?

신 미 옥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문화는 그 자체로써 행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도가 2018년부터 문화교육서비스의 지역격차 완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도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협업해 서귀포시 12개동 주민들에게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강사와 공간을 매칭해 주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4년차인 문화중개소 사업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공서비스에 대한 격차를 완화시키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예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왔다.

올해 진행되는 문화중개소 상반기 프로그램은 ▷14개 단기프로그램(3.29~6.19. 17주), ▷4개 장기프로그램(3.29.~7.24. 13주), ▷5개 동호회 프로그램(2021. 5월~11월 20주)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예지영의 첼로살롱' 등 38개 단기 프로그램에 420명이 참여했으며, '2020 바다의 기록' 등 6개 장기 프로그램에 78명이 참여, '파도소리' 등 7개 동호회 프로그램에 108명이 참가해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문화교육서비스 여건에서 지역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 도모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문화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친절 온도에 대한 생각

강 태 준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친절에도 사람마다 온도가 있다. 과연 나의 친절은 상대방에게 몇 도의 따뜻함으로 다가갈까? 혹은 차갑게 느낄까? 냉정하게 봐 어떤 민원에게는 따뜻함 혹은 어떤 민원에게 차가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동료 주사님이 업무 상담 중에 민원인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몰랐던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했다. 옆자리에 있는 나는 민원인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봤다. '상대방에게 친절하려면 경험, 그리고 업무에 대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절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민원을 대할 때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처리는 못 해줘도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원에게 "안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민원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안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한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고려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

친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라고 본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사라고 생각한다. 인사란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대화를 이끌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자주 보이게 된다. 먼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먼저 건네며 다가간다면 좀 더 친절하고 민원 입장에서 신속한 업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친절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첫번째 실력을 갖춰야 되고, 두번째 상대방에 대한 배려, 마지막 세번째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지방 공무원법 제 51조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친절 온도는 몇 도인지 한 번 생각하면 좋을 듯 싶다.